

교육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

‘규제’에서 ‘자율’로... ‘평등’에서 ‘경쟁’으로

3년 등 기존 정책 10년만에 대수술
인수위 “국민합의 우선” 내달초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일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밝힌 교육개혁의 기초는 교육 부문을 ‘규제’에서 ‘자율’로 전환이다.

이날 교육부의 업무 보고는 크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과 교육부의 기능 조정 등의 방향으로 진행됐다. 또 이날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예상됐던 대로 대학 입시를 자율화하고 교육부 기능의 상당 부분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대학 입시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1단계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의 반영 비율을 자율화하고 ▲2단계로 수능 과목을 7개에서 4~5개로 축소하며 ▲3단계로 본고사·고교등급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명박 당선인의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기능 조정=그 동안 지나치게 교육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대학 입시 분야 업무가 대학협의체로 이관된다. 우선 교육부의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기능이 사실상 폐지되고 대학입시 관련 업무는 오는 2월 초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교육부에서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협의체

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주호 인수위 사회문화교육분과 간사는 새 입시의 구체적 적용 시기와 관련, “2009년부터 할지, 2010년부터 할지, 2011년부터 할지를 놓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2월 초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그 동안 교육부가 사전 규제해온 초·중·고 교육 분야의 자율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 지정 기능을 해당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교육부 폐지 문제 대해 이 간사는 “지금 당장 어떤 것이 합쳐진다, 나눠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이양하는 부분을 많이 논의했으나 한편으로는 기능이 융합돼야 할 부분이 있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과기부와 교육지원 기능이 융합돼야 하며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과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학습 기능이 융합돼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간사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고등교육원 설립’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못을 박았다.

◇기타 이명박 당선인 공약 실현=인수위는 또 지난해 첫 도입된 수능 등급제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월초 개편방안을 보고하라고 교육부 측에 요구했다. 수능등급제에 대한 대안 마련은 대선 기간 이 당선인이 공약한 것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오는 3월 여론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매우 안전한 발상으로 보인다”며 “온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차기정부 출범 이전인 2월 초까지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평가의 지역별 결과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적을 매년 공개토록 하는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수정토록 교육부에 요청했다.

인수위는 교원신분과 관련, 국가공무원직은 유지하되 정원 및 임용인사와 관련한 기능은 시·도 교육청에 이관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설정 업무는 중앙에서 유지하되 나머지는 학교단위에서 자율운영토록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 100곳과 마이스터고(전문계 특성화 고교) 30곳, 기숙형 공립고 150곳 등 고교 300곳을 임기 내 신설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평준화를 보완할 수 있는 ‘엘리트 고교’를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설 붕괴 비닐하우스 복구
광주 서부경찰서 방법순찰대와 112 타격대 소속 대원 50명은 2일 폭설로 붕괴된 광주시 서구 유덕동 방울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시설물 복구 작업을 벌였다.

■ 당선인 인선 착수... 호남 인사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설
‘지역 배려’ 탕평책 기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일 기능위주의 정부조직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국무총리 및 각료에 대한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실용에 가려 지역 배려가 미진했다는 점에서 각료 구성에 있어서는 호남 인사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일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과 전문가 및 공직사회의 의견을 들어(조직개편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직개편안 확정시기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인수위가 밝힌) 1월 중순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마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지만 지연 지체될지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주변에서는 인수위가 이미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소속 ‘정부혁신·규제개혁TF’를 중심으로 조직개편 논의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르면 이달 중순에 1차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 국무총리 및 각료에 대한 조카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

이경숙·정운찬·정몽준·박근혜 총리 후보

20일께 총리 임명·이달말 조각 명단 발표

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인수위가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만큼 조각에 관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며 “이미 이 당선자 측에서 총리 및 각료 인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월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달 20일까지는 각료 인선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우선 이달 중순 국무총리를 인선한 뒤, 총리 예비 후보자와 함께 내부적으로 각료 구성에 협의를 해나가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이 당선자 측이 오는 20일을 전후해 총리를 임명한 뒤 이달말께 조각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총리 후보로 이경숙 인수위원장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정몽준 의원, 박근혜 전 대표 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수위 구성에서 지역 배려가 사실상 없었던 만큼 각료 구성에서는 호남 인사들이 중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장 이만의 한나라당 광주 선대본부장의 환경부 장관 기용설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용섭, 장병완 장관 등 현 참여정부 호남 출신 장관들의 연임 가능성과 함께 일부 호남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발탁설도 나오고 있다.

■ 지역 교육계 반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일 고등교육에서는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교육계는 ‘기대만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전남대 유종원 기획협력처장은 “대학에 자율권을 준다는 의미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자율에 따른 책임을 생각하면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 간 평가가 있을텐데 자율화로 인해

“대학에 자율권 확대는 환영”
“지방고교 어려움...사교육 기승”

현재의 지역별, 대학별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대 설현영 교무연구처장은 “대학의 자율이 커지면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좋은 면도 있으나 3분 정책 훼손 등 평준화의 근본을 뒤흔

드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인수위 보고를 교육 부문에서 가장 먼저 받은 것을 보면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철학과 원칙 아래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넘겨주는 것은 전남도 입장에서 본고사 부활로 여겨지며 수능만을 준비해 온 지방 학교로서는 어려움이 가중돼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최병량 교육국장

은 “인수위의 교육 관련 정책들이 바람직한 것들도 많지만, 여러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도가 읽혀 우려도 생기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최명자 교육부장은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해 사교육을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명문고 입학에 목을 매 사교육이 기승을 부렸던 평준화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주) 조이트레블
광주광역시 동구 동문로 3가 37번지 2층
대표전화 (062) 234-3222

신년-3월초
신년여객 동행 일본여행
1월 10일~12일 4박 5일
대박연속의 뽀나루 온도(4박), 유수 온천 여행 4일 339,000
대박연속의 뽀나루 온도, 동원 온천, 묘산 호텔(4박), 유수 온천 여행 4일 369,000
거울방막 거북고 함께 일본 온천 묘산에서 온천(4박) 4일 449,000
429,000

중국여사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디어센!

599,000

무안 마카오, 홍콩 전세기

무안-마카오-홍콩	159,000	무안-마카오-홍콩	159,000
무안-홍콩-마카오	179,000	무안-홍콩-마카오	179,000
무안-마카오-홍콩-마카오	179,000	무안-마카오-홍콩-마카오	179,000

무안 유학(일본) 여행
하문골프(54홀)-4일